

호랑이 아직은 여유만만



초반 마운드 빼격볼구 '챔프본색' 되찾기

윤석민 오늘 출격 ... 본격 승수쌍기 돌입

'디펜딩 챔피언' 아직은 여유 있다.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2차전이 전개된 지난달 31일, 경기가 열린 무등경기장야구장에는 오전까지 많은 비가 쏟아졌다.

말았던 마운드가 빼격거리며 개막과 함께 3연패에 빠진 KIA 팬들과 관계자들은 내심 우천취소를 바라는 분위기가었다.

하지만 무등경기장에 무섭게 쏟아진 비는 KIA 선수들의 출근시간에 맞춰 조금씩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선수들의 몸풀기가 시작된 오후 2시가 넘어서는 이슬비가 가끔 오가는 정도의 흐린 날씨가 이어졌다.

덕아웃에서는 경기가 진행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잠시 대화가 오갔다. 덕아웃 토론은 '최고참' 이종범의 한마디로 정리됐다. 유심히 경기장 외곽쪽 하늘을 올려보던 이종범은 "맑았다. 하늘 바라. 저기 하늘 밝아온다"를 외쳤다. 경기장 하늘만 보고도 우천취소 여부를 판가름 한다는 베테랑 이종범의 예보가 나온 뒤 선수들은 본격적인 경기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조범현 감독에게도 날씨는 중요한 변수.

지난주 두산과의 개막 2연전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자 이번주 예고된 비 소식에 누구보다 화색을 띠었던 조범현 감독이었다.

2연패를 목표로 시즌을 준비해왔던 조범현 감독은 개막하기도 전에 로드리게스·이대진 두 선발카드를 부상으로 잃었다. 또 개막 이후 세 경기에서 필승카드로 내세운 로페즈, 양현종이 갑작스런 난조로 순식간에 무너진데다 '깜짝호투'를 기대했던 신에 전태현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설상가상 윤석민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마운드 위기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기를 쉬어갈 수 있는 비예보는 조범현 감독에게 '가뭄속 단비'나 마찬가지.

그러나 경기전 하늘을 올려다보던 조범현 감독의 표정은 예상과 달리 담담했다. 나름대로 조범현 감독에게 '믿을 구석'이 있었던 터다.

조범현 감독은 로페즈·양현종의 첫 등판 내용이 좋지 않았지만 우려할 만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성장통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등판여부가 불투명했던 윤석민이 '이상무'를 외치며 1일 정



상적으로 출격할 수 있게 돼 굳이 경기를 피할 필요가 없다는 나름대로의 여유가 생긴 것이다.

결국 30일 잠실, 목동, 대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세 경기 모두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비가 비껴간 무등경기장에만 한하게 조명탑이 밝혀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 F1국제자동차대회 티켓 발매식에서 정영조(오른쪽) KAVO 대표와 류시원(왼쪽) 흥보대사가 전남 영암 대회를 3차원 홀로그램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필뉴스

F1 그랑프리 입장권 평균 46만원

10월 영암 개최... 최저 11만7천원~최고 92만원 책정

오는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코리아그랑프리 입장권 평균 가격이 46만원(이하 부가치세 별도)으로 결정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법인 KAVO는 지난달 3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티켓 발매 행사인 '그랜드 오픈 페스타'를 개최하고 입장권 발매를 시작했다.

입장권은 모두 8등급으로 구분되며 가장 싼 입장권은 10월23일 열리는 예선에 스탠드 J구역에 앉을 수 있는 것으로 11만7천원이다. 또 가장 비싼 것은 메인 그랜드 스탠드 전일권으로 92만원에 책정됐다.

KAVO는 "월드컵 축구대회,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행사의 입장권 가격과 아시아 지역이나 소득이 비슷한 나라가 여는 F1 대회 입장권 가격과 비교해 결정했다"며 "싱가포르 F1의 최고가 입장권 1천183달러, 일본의 1천79달러와 비교해도 한국 F1의 최고가 입장권은 880달러로 싼 편이다"고 밝혔다.

KAVO는 "이처럼 입장권 가격을 싸게 책정한 것은 앞으로 대회가 7년간 열리게 돼 있기 때문"이라며 "첫해 합리적 가격으로 수요층을 자극해 장기 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4월에 입장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주며 메인 그랜드 스탠드 구입자 2천10명에게 선착순으로 좌석을 직접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장권은 대회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ngp.kr)나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에서 살 수 있다. KAVO는 또 입장권 발매와 함께 VIP 특별 관람실인 기업 부스의 판매도 함께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F1 코리아그랑프리에는 영암 서킷에서 10월22일 연습, 23일 예선이 열리며 24일 결승 레이스가 펼쳐진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프로야구 신인 1차 지명 부활 되려나

아마추어 유망주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프로야구의 활성화를 위해 신인 1차 지명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 프로야구 8개 구단은 최근 미국프로야구의 한국 유망주 스카우트가 쇠도하면서 국내 야구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각하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KBO와 각 구단은 구단 간 전력 평준화를 꾀하고자 지난해부터 지역 연고에 기반을 둔 1차 신인 지명을 폐지하고 전면 드래프트를 시행했다. 그러나 지명권이 풀린 대어급 선수들이 일찌감치 해외 구단과 계약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해에만 8명의 선수가 평균

대어급 해외 유출 막고
한국 야구 활성화 위해
연고권 지명 논의 속출

30~50만달러의 계약금을 받고 메이저리구 구단과 계약했다.

KBO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미국프로야구 사무국이 벌써 고교 유망주 23~24명에 대한 신분 조회 요청을 해왔다. 이들 중에는 2학년도 있다. 보통 5~6월에 있던 일인데 올해는 3월부터 신분조회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첫 전국고교야구대회인 황금사자

기에서 4승, 평균자책점 0으로 최우수선수를 차지한 광주일고 원팔 기대주 유창식(18)이 메이저리구 전문 에이전트 이치훈씨와 손을 잡고 바리크 진출을 타진하는 등 해외 진출을 노리는 유망주들이 상당수 있다고 각 구단 스카우트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 야구의 젖줄이 매마를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인 야구협회는 이미 지난 17일 프로·아마추어 실행위원회에서 KBO에 연고 1차 지명 부활을 공식 건의했다. 정근조 KBO 운영부장은 "새 정책을 시행한 지 1년밖에 안됐기에 올해 안으로 전격 수정은 힘들 것"이라면서도 "곧 KBO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해결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필뉴스



지난달 3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꿈나무 선수 선발 육상경기대회 남초부 6학년 80m 예선에서 참가선수들이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육상 미래가 밝다

전국 꿈나무 선발 광주제중 한정미·송정초 박창현 2관왕

광주육상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

광주지역 육상 꿈나무 한정미(광주체육중)와 박창현(송정초)이 제12회 전국꿈나무 선수 선발육상경기대회에서 각각 2관왕에 오르는 금빛질주를 펼쳤다.

한정미는 지난달 3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중 2학년 200m 결승에서 26초02를 기록, 김현주(목포항도여중·28초34)와 최예원(전주신일중·28초59)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로써 한정미는 전남 열렸던 100

m우승에 이어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초등 6학년부 200m 결승에서는 박창현이 26초01의 기록으로 김현수(문광초·26초85)와 신명하(전북이리초·27초12)를 따돌리고 1위로 끝냈다. 박창현도 전날 초등 100m 우승에 이어 200m 까지 휩쓸며 대회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한정미와 박창현의 금빛질주는 앞으로 광주육상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육상경기연맹 심재용 전무이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한국육상의 기대주로 떠오를 꿈나무들을 많이 발굴하게 됐다"면서 "특히 광주지역 육상소년·소녀들의 기량이 뛰어나 앞으로 광주육상 뿐만 아니라 한국육상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육상경기연맹 주최, 광주육상경기연맹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초등 남녀 4·5·6학년, 중등 남녀 1·2학년 600여명이 참가해 그간 뛰어난 기량을 펼쳤다. 총 71개 종목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초등 22개 종목, 중등 49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뉴욕양키스 산하 마이너리그 소속 '스위치 투수'인 팻 벤디트가 지난달 31일(한국시각)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시범경기에서 오른손으로 던지는 모습(왼쪽)과 왼손으로 던지고 있는 모습.



오른손으로 던질까? 왼손으로 던질까?

막바지 시범경기를 벌이고 있는 미국프로야구(MLB)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스위치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

뉴욕 양키스 산하 마이너리그 소속인 팻 벤디트(24)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각) 플로리다주레이크부레나비스타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시범경기에서 등판해 1⅓이닝 동안 2안타로 1실점했다.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애틀랜타 스위치 타자인 브록스 콘래드가 나온 순간.

콘래드는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주심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었고 주심은 이른바 '벤디트 룰'에 따라 투수에게 어느 손으로 던

미 프로야구 '양손 투수' 벤디트 시범경기서 '양손 타자'와 맞대결

질 것인지 먼저 확인했다.

벤디트가 오른팔을 들어 던질 손을 결정하자 콘래드는 왼손 타석에 들어섰으나 1루 땅볼에 그쳤다.

'벤디트 룰'이란 벤디트가 2008년 양키스 산하 싱글A에 데뷔한 뒤 생긴 규정이다. 데뷔 첫해 벤디트가 스위치 타자들과 대결에서 잦은 실망이 벌어지자 메이저리구는 ▲투수가 먼저 던질 손을 결정 ▲공 1개를 던진 뒤 스위치가 가능하며 한 타석에서 한 차례만 스위치 허용 ▲투구 팔을 바꿀 때 연습투구는 불가 등의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연필뉴스

탁구 수비달인 주세혁 폭스바겐컵 준우승

남자 탁구의 '수비 달인' 주세혁(삼성생명)이 2010 폭스바겐컵에서 아깝게 우승을 놓쳤다. 주세혁은 지난달 30일 밤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대회 남자단식 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 마릉(중국)과 결승에서 1-4(3-11 11-9 7-11 11-13 4-11)로 져 준우승했다고 선수단이 지난달 31일 알려졌다.

한국 남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주

세혁은 국제탁구연맹(ITTF) 후원사인 폭스바겐이 3월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선정한 10위권 이내의 남녀 8명씩 초청한 대회에서 값진 성적을 올렸다.

같은 수비형 선수인 김경아(대한항공)는 여자단식 준결승에서 세계 1위 류첸(중국)에 1-4로 무릎 꿇었다.

/연필뉴스